

2025 군무원 7급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보기>의 ㉠~㉣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어문규범을 지킬 것
-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쓸 것
- 중복적인 표현은 간결하게 고칠 것
- 조사나 어미를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을 것

<보기>

안녕하십니까?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동 실시하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를 위한 안내입니다. 만일 조사 협조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 귀화 신청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계청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중앙 정부기관입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조사 내용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공통 조사 항목과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① ㉠: 공동으로 실시하는
- ② ㉡: 받지 못 하셨다면
- ③ ㉢: 법무부는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 귀화 신청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 ④ ㉣: 조사 내용은 공통 조사 항목과 체류 자격에 따른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해설 ②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보조 용언 '못하다'는 붙여 쓴다. '받지 못하셨다면'(O)으로 써야 한다.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 쓰기를 올바르게 갖춰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공동'이 '실시하다'라는 동사를 자연스럽게 꾸며 줄 수 있도록 '공동'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붙인다. 조사를 올바르게 붙여 문장을 문법에 맞게 써야 한다.
- ③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는 군더더기 표현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누가 '잘 알고 계실 것'인지 주체를 알 수 없다.
- ④ 주어 '조사 내용'과 호응이 되도록 서술어를 '구성되어' 있다

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수정한다. '공통 조사 항목'은 모든 대상이 받아야 하는 조사 항목이다.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하는'과 중복된다. 중복적인 표현은 간결하게 고친다.

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오늘은 나 먼저 갈께.
- ②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 ③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 ④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레임을 동화적으로 풀어낸 가사가 특징적이다.

02

해설 ②

'삼가다'(O)가 올바른 표기이다. '삼가하다'(X)

오답 피하기

- ① 한글 맞춤법 53항 규정이다. 어미 중에서 된소리로 발음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 규정이다. '-르게'로 적는다. '갈께'(O)
- ③ '바람'(O)이 올바른 표기이다. 여기서 '바람'은 '바라다'의 '바라-'에 '-ㅁ'이 붙어 명사형 '바람'이 된 것이다. 참고로 '바램'은 '바래다'의 '바래-'에 '-ㅁ'이 붙은 말로, '청바지 색이 바램'과 같이 '색이 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 ④ '설렘'(O)이 맞다. '설렘'은 동사 '설레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다. '설레이다(X)'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레임(X)'이 아니라 '설렘'으로 써야 한다.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루고 미루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났다.
 ㄴ. 그는 관심이 댕기는지 다음 말을 재촉했다.
 ㄷ.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03

해설 ④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 ㄱ: '사달'은 '사고나 탈'을 뜻하는 말이다. '사달이 나다'(O)로 써야 한다.
 ㄴ: '당기다'(O), '당기는지'(O). '댕기다'는 '불이 옮겨 붙다'의 뜻에만 쓴다. 예) 불을 댕기다.
 ㄷ: '깨우치다'는 '깨달아 알게 하다'의 뜻으로 사동의 의미가 있다. ㄷ은 '스스로' 알게 되었으므로 '깨우치다'를 쓸 수 없다.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알다'의 뜻이며 능동의 의미인 '깨치다'를 써야 한다. '스스로 깨졌다'(O)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른바 말투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상대방의 말투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 제목은 한마디로 기억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그 발화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에 재미를 붙여넣으려다 저속하고 가벼운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호들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 깊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때로는 미미해 보이는 제목에 신뢰감이 담길 수도 있다. 짧고 소박한 제목이 과묵하고 정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인간성이 흘러나오는 제목이 독자를 붙잡을 때가 많다.

- ① 쉬운 제목이 반드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② 제목은 유혹하는 행위이다. 살짝만 보여줘라.
 ③ 제목은 내용이 잘 정리돼 있음을 암시해야 한다.
 ④ 제목은 의미 외에 태도와 인간 품격까지 보여준다.

04

해설 ④

제목은 한마디로 그 발화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에 재미를 붙여넣으려다 저속하고 가벼운 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호들갑스러워 보이고 지적 깊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글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목이 글쓴이의 태도와 인간 품격(인간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제목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팔린다'는 판매나 인기와 관련된 내용이며, 지문의 핵심은 제목이 드러내는 글쓴이의 품격에 있다.
 ② 제목이 독자를 붙잡을 때가 많다고 했지만, 이를 유혹하는 행위로 규정하거나 '살짝만 보여줘라'와 같은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문의 초점은 제목의 기능보다는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글쓴이의 인상에 더 가깝다.
 ③ 지문에서 제목이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제목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지문은 제목이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목이 품기는 인상과 그 인상이 글쓴이의 태도나 품격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나는 세 번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
 ② 듣고 보니 좋아할만은 한 이야기이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05

해설 ④

'만'은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하나만'(O)으로 붙여 쓴다.

오답 피하기

- ① '번'은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세번(번)만에'(O)로 써야 한다.
 ② '만'은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좋아할(만)은'(O)
 ③ '시간'은 시간의 기본 단위를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두(시간)만에'(O)

6.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질 뿐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진 다. 불가피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능동형을 쓰는 것이 좋다.

- ①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수급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 ②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인위적 변화로 자연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 ④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6

해설 ③

글은 잘못된 피동 표현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③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모두 능동 표현이다.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능동 표현으로 바꿨을 때 자연스럽다면 능동 표현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절되어야 한다’는 피동 표현이다. ‘조절해야 한다’(O)가 자연스럽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O)
- ② ‘수립되어야 한다’는 피동 표현이다. ‘수립해야 한다’(O)가 자연스럽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O)
- ④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모두 피동 표현이다. 또한 어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추측형 문장이다.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O)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7. (가)와 (나)를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 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모두 승용차로 갈 수 있다.
(나)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도시 가운데는 KTX로 갈 수 없는 도시도 있다.

따라서

- ①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도시 가운데는 KTX로 갈 수 없는 도시도 있다.
- ②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모두 고속버스로 갈 수 있다.
- ③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모든 도시는 KTX로 갈 수 있다.
- ④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어떤 도시는 승용차로 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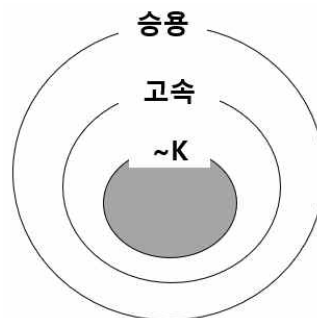
07

해설 ①

언어 논리 문제이다. 전제를 바탕으로 참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선택지 중에서 참이 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 (가)와 (나)의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조건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속버스 = 고속 / 승용차 = 승용 / KTX로 갈 수 있는 도시 = K

○ ‘~’은 부정(not)의 의미



‘승용차’는 ‘고속버스’를 포함하고, 고속버스 내에 ‘~KTX’가 있기 때문에 결국 승용차로 갈 수 있는 도시 가운데는 KTX로 갈 수 없는 도시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승용’이 ‘고속’을 포함하지만 ‘승용 = 고속’(X)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전제와 관련이 없다.
- ④ (가) 전제를 위반한다. 고속버스로 갈 수 있는 도시는 모두 승용차로 갈 수 있어야 한다.

8. 제시된 문장의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단, √은 띄어쓴다는 표기임)

- ① 밤새√지끈거리던√머리가√이튿날이√되자√말짱해졌다.
- ② 그√건물은√기둥이√지붕을√떠바치고√있는√모양새였다.
- ③ 언√땅을√잘못√딘다가√발목을√접질렸다.
- ④ 그는√빈털털이√신세였지만√희망을√잃지√않았다.

08

해설 ③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딘다’는 ‘디디다’의 준말이며, 발을 땅에 올려놓는 뜻의 문장이기 때문에 ‘딘다가’(O)는 올바른 표기이다.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뻗지경에 이르다.’는 ‘접질리다’(O)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튿날’(X). ‘이튿’이 ‘날’과 결합했지만 ‘ㄷ’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이튿날’(O)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밤사이’의 준말은 ‘밤새’(O)로 하나의 단어이다.
- ② ‘떠바치다’(X).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받쳐 버티다.’는 ‘떠받치다’(O)이다.
- ④ ‘빈털털이’(X) → ‘빈털터리’(O)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형태, 즉 음성기호와 의미로 구성된 다. 그런데 형태와 의미는 일대일의 대응 관계는 아니다. 하나의 형태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기도 한다. 이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별개의 단어이지만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동음어라 하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의어라 한다. 다음 문장에는 모두 ‘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는 같지만 의미 관계는 다양하다.

<보기>

- ㄱ. 그는 요즘 신문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다.
-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 ㄷ.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 ㄹ. 감기를 앓았더니 입맛이 쓰다.
- ㅁ. 이 일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기로 했다.

- ① ㄱ, ㄴ, ㄷ의 ‘쓰다’는 동음어라고 할 수 있다.
- ② ㄱ, ㄴ, ㅁ의 ‘쓰다’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 ③ ㄱ, ㄷ, ㅁ의 ‘쓰다’는 동음어라고 할 수 있다.
- ④ ㄴ, ㄷ, ㄹ의 ‘쓰다’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09

해설 ①

ㄱ, ㄴ, ㄷ의 ‘쓰다’는 형태는 같지만, ‘글을 작성하는 행위’, ‘누명을 덮어쓰는 행위’,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미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별개이다. 동음어라고 할 수 있다.

- ㄱ. 글이나 문서를 작성하다.
- ㄴ. (죄, 누명 등을) 덮어쓰다, 뒤집어쓰다.
- ㄷ. (언어, 도구 등을) 사용하다, 이용하다.
- ㄹ. (맛이) 떴고 쓴 맛이 나다.
- ㅁ. (사람을) 고용하다, 채용하다.

오답 피하기

- ㄹ: 모든 ‘쓰다’와 동음어 관계이다.
- ㅁ: ㄷ과 다의어 관계이다. ‘사람을 쓰다(고용하다/채용하다)’와 ‘반말을 쓰다(사용하다)’는 어떤 대상(사람, 언어 등)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이용한다는 공통된 의미 맥락을 지닌다.

10. 밑줄 친 관용구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발이 넓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 ② 저렇게 눈이 높은 아가씨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 눈에 날 리가 없다.
- ③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이오. 다 된 일에 코 빠뜨리 자는 속셈이 아니라면 대관절 이럴 수가 있는 거요.
- ④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비쳤던 김 씨가 사실 엄청난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입이 썼다.

10

해설 ②

‘눈에 나다(= 눈 밖에 나다)’는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될 때 쓰는 말이다. 아가씨가 청년에게 ‘마음에 들다’의 뜻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흡족하여 마음에 들 때 쓰는 말인 ‘눈에 차다’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 ③ 코(를) 빠뜨리다: 못 쓰게 만들거나 일을 망치다.
- ④ 입이 쓰다(= 입안이 쓰다): (사람이)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

11.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 ②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를 먹어야 한다.
- ③ 게시판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 ④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사람이 찬성했다.

11

해설 ②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에서 ‘푸드’를 중복 사용하기는 했지만, 각각 지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지난’과 ‘과거’는 의미가 중복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다가올’과 ‘미래’도 의미가 중복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때’를 의미하므로 ‘다가올’이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하다. “과거는 다 잊고, 미래를 준비하자.” 또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다가올 일을 준비하자.”(O)
- ③ ‘자주 묻는 질문’은 이미 ‘묻는’과 ‘질문’이 중복된 표현이다. ‘자주 묻는’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한데, 다시 ‘질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된다. “게시판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O)
- ④ ‘과반수(過半數)’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넘는’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중복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찬성했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반을 넘는 사람이 찬성했다.”(O)

12.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리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②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 -

- ① ①은 시적 자아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
- ② ②은 시적 자아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외부적 힘을 상징한다.
- ③ 혹독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정적 명령형 어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부당한 세력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12

해설 ④

이 시에는 ‘말아라’, ‘못해라’와 같은 부정적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세력(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시적 자아 자신이 안주하거나 나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강렬한 자기 부정과 의지 표명이다. 일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다짐이다. ‘비판(批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푸른 하늘’은 현실을 초월한 고귀한 이상향, 혹은 광복된 조국을 상징한다. 시적 자아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 공간이다.
- ② ‘바람’은 시적 자아를 흔들고 좌절시키려는 외부적인 시련, 유혹, 고난 등을 의미한다. 이는 시적 자아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모든 부정적인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
- ③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리’,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등의 표현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절개와 신념을 굽히지 않는 시적 자아의 강인하고 초인적인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3.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래 길들인 생활의 터전을 내준 걸 후회했다. 후회해 봤자 晩時之歎이었다.
- ② 눈보라가 몰아쳐 산을 오르기가 어려웠는데 雪上加霜으로 주위마저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 ③ 외촌동은 하루아침에 미군이 철수해 버린 기지촌처럼 썰렁해졌고, 여태까지 遲遲不進으로 뛰어오르던 땅값은 폭락하여 버렸다.
- ④ 달주는 편지를 읽고 나서도 한참 멍청한 기분이었다. 換骨奪胎라고 하지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었다.

13

해설 ③

- 지지부진(遲遲不進): 일이나 진행이 느리고 지체되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땅값이 계속해서 (빠르게)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했다는 문맥이다. 파죽지세(破竹之勢), 고공행진(高空行進), 천정부지(天井不知)가 어울린다.

오답 피하기

- ① 晩時之歎(만시지탄): 때가 늦어 후회하여도 소용없음.
- ② 雪上加霜(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침.
- ④ 換骨奪胎(환골탈태): 뼈를 깎고 태를 바꾸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으로, 사람이 더욱 훌륭하게 변모하거나, 어떤 사물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 비약적으로 발전함.

14. 밑줄 친 한자어의 풀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담이 교착(膠着) 상태에 빠졌다. → 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
- ② 회담이 타결점에 육박(肉薄)했다. → 바짝 가까이 다가붙음.
- ③ 이 조약의 공포는 두 나라의 영토 분쟁을 종식(終熄)하는 의미를 지닌다. →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 ④ 장군은 일본 수군의 준동(蠢動)이 반드시 또 한 번 크게 있을 것을... → 벌레 따위가 꿈적거린다는 뜻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을 이르는 말.

14

해설 ①

‘교착(膠着)’은 ‘아교 교(膠)’, ‘붙을 착(着)’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본래 의미는 ‘아교처럼 끈끈하게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음’ 또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진전이 없는 정체 상태를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 ② 육박(肉薄): ‘고기 육(肉)’, ‘얇을 박(薄)’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 여기서 ‘肉薄’은 ‘몸이 바짝 달라붙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감’이라는 뜻이다.
- ③ 종식(終熄): ‘마칠 종(終)’, ‘숨길 식(熄)’ 또는 ‘꺼질 식(熄)’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불이 꺼지듯 완전히 끝남’ 또는 ‘어떤 현상이나 일이 완전히 끝나거나 멈춤’을 의미한다.
- ④ 준동(蠢動): ‘벌레 준(蠢)’, ‘움직일 동(動)’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본래 의미는 ‘벌레 따위가 꿈틀거리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되어 ‘어떤 불순한 세력이나 하찮은 무리가 몰래 움직이거나 법석을 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통(J.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통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 ① 폭력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의 소극적 폭력과 물리적, 직접적 폭력과 같은 적극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 ② 소극적 평화의 단점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 ③ 적극적 평화란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 ④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다.

15

해설 ①

갈통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 반면, 폭력은 ‘물리적,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했다. 폭력을 소극적 폭력과 적극적 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평화의 구분을 폭력에 적용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며,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③ 적극적 평화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④ 글 첫 문장에서 갈통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16.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논증하고 다시 결론을 바탕으로 전제를 논증하는 오류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2는 5와 7로 나뉜다. 그러므로 5와 7도 짝수다.
- ② 이 옷은 값이 싸다. 값이 싼 것은 쉽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옷은 쉽게 떨어진다.
- ③ 김 선생의 의견도 틀렸다. 민 선생의 의견도 틀렸다. 그러므로 선생들의 의견은 틀렸다.
- ④ 그는 덕망이 높다. 그는 인격자이니까. 그러므로 그가 인격자인 것은 덕망이 높기 때문이다.

16

해설 ④

‘순환 논증의 오류’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 주장 (결론): 그는 덕망이 높다.
- 전제 (이유): 그는 인격자이니까.
- 다시 결론 (이유): 그가 인격자인 것은 덕망이 높기 때문이다.

이 논증은 덕망이 높다는 것을 ‘인격자’라는 전제로 뒷받침하고, 다시 인격자라는 것을 덕망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는 B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는 A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태로 순환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순환 논증의 오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도 불리며,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그 결론 자체이거나 결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주장을 반복하는 오류를 말한다. 즉, ‘A는 B이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 또는 ‘A는 B이다. 그리고 B는 A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형태를 띤다.

오답 피하기

- ① 오류 없는 진술 또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론이다. 12는 5와 7로 나뉘지 않으며, 5와 7은 홀수이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명제들이다.
- ② 삼단논법(연역 논증)의 올바른 적용이다.
- ③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결합의 오류이다. 두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는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선생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일반화하는 오류이다.

17. 다음은 우리말의 어순(배열 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 ㉠~㉣에 들어갈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 관련어의 어순(배열 순서)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순서를 반영한다. 문법적으로 대등한 자격을 가진 요소들이 나란히 배열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 (1) 기준(발화시)이 없을 때는 자연 시간의 순서에 따른다. -----(㉠)
- (2) 기준(발화시)이 있을 때는 가까운 것이 앞서고 멀어질수록 뒤로 간다. -----(㉡)
- (3)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 앞선다. -----(㉢)
- (4) 특별히 강조하거나 초점이 놓이면 시간적 순서가 반대가 된다. -----(㉣)

- ① ㉠: 우리나라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이 있다.
- ②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 ③ ㉢: 날씨가 좋아 강변에는 나들이 온 사람들로 붐볐다.
- ④ ㉣: 잡음이 많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17

해설 ②

발화자가 말을 한 시간(시점)을 ‘발화시’라고 한다. 발화자의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것이 앞서고 멀어질수록 뒤로 가야 한다. ‘사활(死活)’은 ‘죽기와 살기’라는 뜻이다. ‘죽기’가 앞서고 ‘살기’ 뒤로 갔기 때문에 시간 관련 어순과 반대로 배열이 되었다. (2)에 부합하는 시간 관련어의 단어를 예로 든다면 ‘생사(生死)’가 적절하다.

- 사활(死 죽을 사, 活 살 활): 죽기와 살기라는 뜻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생사(生 날 생, 死 죽을 사):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죽살이’

오답 피하기

- ① ‘봄-여름-가을-겨울’은 1년이라는 자연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란히 배열되었다.
- ③ ‘나들이’는 ‘나다(나가다)’와 ‘들다(들어오다)’가 결합한 말이다.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또는 ‘어느 곳을 드나들’의 뜻이다. 이동하는 경우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들어오는 일이 뒤로 간 단어이다. 같은 뜻의 한자어로 ‘출입(出入)’이 있다.
- ④ ‘알아들다’는 ‘알다 + 들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두 동사는 시간 순서상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순서를 따진다.

다면 ‘먼저 듣고 → 나중에 안다’가 되어야 한다. 소리를 듣고 나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으로만 보면 ‘듣다 → 알다’가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그러나 화자의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들었는가’가 아니라 ‘이해했는가’이다. 단순히 듣는 행위보다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사실(=알았다)’에 초점이 놓여 있다. ‘알아듣다’는 단순히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참고 어순 배열

시간 관련어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처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 관련어들은 나열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 즉 생각의 순서를 반영하는 어순으로 배열된다. 시간 관련어는 문장 내에서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반영하는 순서로 배열되어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고 문장의 논리적 완결성이 높아진다.

(1) 하루의 시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 시간의 순서가 ‘아침 → 점심 → 저녁’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다. 가령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으며, 아침에 일어났다.”로 표현한다면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어색하게 느껴진다.

(2) 시간대의 흐름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고, 현재는 산업 사회이며, 미래에는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 ‘과거 → 현재 → 미래’의 순서를 따르므로 문장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다. 가령 “현재는 산업 사회이며, 미래에는 정보 사회가 될 것이고,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다.”로 표현한다면 시간의 흐름이 뒤섞여 있어 문장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

18.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희와 철수는 결혼하였다.
- ② 준호는 민수와 철수를 만났다.
- ③ 그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 ④ 어머니는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18

해설 ③

‘그’가 ‘철수’를 자신의 친구로 인지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을 전달한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불분명하다. 영희가 철수와 서로 부부가 되어 결혼을 했는지, 영희와 철수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 중의적이다. 가령 “영희는 철수와 결혼했다.”로 고친다면 특정 인물인 영희와 철수가 부부가 된 결혼 명시으로 의미 파악이 명확하다.

② 준호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준호가 민수와 철수, 두 사람 모두를 만났는지, 준호가 민수를 만나고 이 둘이 함께 철수를 만난 것인지 중의적이다.

④ 누가 웃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보았는지(아이는 노래만 함), 노래하는 아이가 웃으면서 어머니의 시야에 들어왔는지(어머니는 웃지 않음) 중의적이다.

19. (가) ~ (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공유 경제’는 사람들을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하고, 공유할수록 더 다양한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가)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만 맞는 이야기다. 벌어지는 현상 이면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미래를 공유의 시대로 선포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데이터 소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영상들을 공짜로 공유하게 됐지만 영상을 보는 대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플랫폼 제공자에게 전송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찾았던 명소와 맛집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며 보람과 즐거움, 존재감을 만끽하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 또한 플랫폼 제공자에게 전송되고 있다.

(나) 나의 경험이 사진과 영상, 문자로 공유되고 지구 반대편 네티즌들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는 공유 경제가 맞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매력적인 공유의 장을 마련한 그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공유된 데이터를 소유한 소수 집단이나 개인은 데이터 제공자에 대해 막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드러난 모습으로는 공유 경제지만 안으로는 업그레이드된 소유 경제다. 새로운 소유 경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공유 경제가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이상 공유 경제는 일부 스타트업, 경제 전문가들만 이해하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미래 비즈니스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전 세계적 파도라는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가) - (다) - (나)

19

해설 ③

공유 경제에 대한 통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소유 경제의 등장을 다루고 있다. 먼저 도입에 해당하는 제시된 글은 공유 경제의 매력적인 측면(소유욕 해방, 풍요로움)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 제시된 글 (도입) → (다): 먼저 공유 경제의 일반적인 인식과 중요성(미래 비즈니스의 파도)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글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는 공유 경제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 (다) → (가): (다)에서 공유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과 중요성을 언급한 후, (가)에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만 맞는 이야기다’라는 반전과 함께 숨겨진 문제점(데이터 소유 전쟁)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이다.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 (가) → (나): (가)에서 데이터 소유 문제를 제기한 뒤, (나)에서 그 문제를 더 심화하고 구체화하여 ‘같은 공유 경제, 속은 소유 경제’라는 본질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는 (가)의 내용을 이어받아 어떻게 데이터가 소유 경제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새로운 소유 경제의 도래를 선언한다.

※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고 홀로 만복사(萬福寺) 동쪽 방 한 칸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절간 방 앞에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때마침 봄을 맞아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이 은세계를 이루었다. 그는 달밤이면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시를 읊조렸다.

[A] 한 그루 배꽃나무 적적함을 짝하니
시름도 많아라, 달 밝은 이 밤이여.
사나아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들려 오나, 고운 임 통소 소리.
외로운 비취는 제 홀로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물에 노니는데.
늪집 인연 그리며 바둑을 두는가.
등불은 가물가물 이 내 신세 점치는 듯.

양생이 시를 읊고 나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그대가 참말로 고운 배필을 만나고자 할진댄 그 무엇 근심할 것 있으랴.”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 이튿날은 곧 삼월 스무나흘이었다. 그 고을에서는 해마다 이 날을 맞게 되면 많은 젊은 남녀들이 반드시 만복사를 찾아 ㉢등불을 켜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 날 양생은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법당으로 들어가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갔던 저포를 내어, 부처님 앞에 던지기에 앞서 스스로 바라보는 바를 사죄었다.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옵고 저포놀이를 해 볼까 합니다. 만약 소생이 지오면 법연(法筵)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해야 할 것이오며,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여인을 소생의 배필로 점지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렇게 축원을 한 다음 ㉣문득 저포를 던지었더니 과연 양생이 승리하였으므로, 곧 그는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사죄되, “인연은 이미 정하여 졌사오니, 소생을 속이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하고, 양생은 불탁(佛卓) 밑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20. 윗글에 삽입된 [A]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묘사의 섬세성
- ② 서술의 압축성
- ③ 정감의 극대화
- ④ 표현의 단순화

20

해설 ③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의 일부 내용이다. 주인공 양생이 외로운 처지에서 배필을 바라는 마음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이후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내용이다. [A]는 이 소설에 삽입된 한시이다. 배경은 달 밝은 밤이며 배꽃이 핀 적적한 공간이다. 양생은 자신의 심정을 ‘적적함’, ‘시름 많아라’, ‘외로운’, ‘짝 잃은’, ‘인연 그리며’, 등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그리고 배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운 신세에 대한 한탄 등 섬세한 정서가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성과의 인연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 주인공의 섬세하고 애절한 정서를 매우 감성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산문으로 서술하는 것보다 시적인 언어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고독과 간절한 염원이 더욱 깊고 강하게 독자에게 전달되며, 이는 정감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한문소설인 『금오신화』에는 중간에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고나, 주제를 강조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가 묘사를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의 주된 역할은 외부 대상의 섬세한 묘사보다는 양생의 내면 심리 즉 정서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데 있다. 묘사 자체보다는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정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② 시가 산문보다 압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가 소설의 서술을 압축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가 삽입됨으로써 양생의 내면을 상세하게 펼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소설의 사건 전개를 압축하기보다는, 특정 순간의 인물 심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 ④ 시 [A]는 오히려 양생의 복합적인 감정(외로움, 시름, 그리움, 신세 한탄 등)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외로운 비취, 짝 잃은 원앙새, 등불 등)를 사용하여 단순화하기보다는 심화하고 있다. 평이한 서술보다 시적 표현이 복잡한 감정을 더 풍부하게 전달하므로, 표현의 단순화와는 거리가 멀다.

21. ㉠ ~ ㉣ 중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21

해설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는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우며 기이한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사건이나 존재가 등장하여 서사의 흥미를 더하는 부분을 전기적 요소라고 한다. 공중으로부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매우 기이하고 신비로운 현상이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하여 양생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전기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 이 부분은 봄이 되어 배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떨어 아름다워지는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다.
- ㉢ 특정 날에 사찰에서 등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것은 현실의 종교적 풍습이나 미신적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비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므로, 전기적 요소가 아니다.
- ㉣ 저포를 던져 승리하는 것은 운에 따른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사건은 아니다.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고 그 놀이에서 이긴 것이 양생에게는 인연이 정해졌다는 확신을 주었지만, 놀이의 결과 자체는 전기적 요소가 아니다.

22. 다음 글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기오염은 인구 증가, 도시 집중, 공업 발달, 에너지 개발 등이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휘발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특히 대규모 공장의 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매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대기오염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장 등의 매연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차를 끌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 ① 문단 간에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② 설득을 위한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논리 전개상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 ④ 문제 해결 방안을 객관성 없이 주관적 생각으로 기술하였다.

22

해설 ①

첫 번째 문단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은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사용이 늘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을 잃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가 바로 그 방안이 어렵다고 하여 논지의 혼란을 야기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글은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과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와 원인-결과 관계는 어느 정도 언급한다. 근거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글은 대기오염의 원인(인구 증가, 화석연료 등)과 결과(대기오염) 사이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의 내용은 대기오염의 일반적인 원인과 해결책(에너지 절감)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인 과학적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특별히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3.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 ② 새로운 안전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③ 국민들 사이에 입시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교육은 제 방향을 찾을 것이다.
- ④ 그는 새로운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느꼈다.

23

해설 ④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공감대(共 함께 공, 感 느낄 감, 帶 띠 대)’라고 한다. 어떤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 서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이해가 생길 때 쓰는 말이다. 공감대는 주로 ‘형성되다’, ‘이루어지다’, ‘넓히다’ 등 집단적인 차원에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와 같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어색하다. 특정 정책에 대해 개인이 공통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공감하다’ 또는 ‘공감을 느끼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는 새로운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감했다.”(O)

오답 피하기

- ① ‘공감대를 넓히다’는 여러 사람 사이에 공통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공감대의 집단적, 형성적 특징과 잘 어울린다.
- ②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다수 사이에 긍정적인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공감대의 집단적 형성 의미와 일치한다.
- ③ ‘공감대가 형성되다’는 국민 다수 사이에 특정 생각이나 의견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공감대의 집단적 형성 의미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적절한 사용이다.

24.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 전용이나 한자 병용이나 하는 논쟁은 한글 전용 쪽으로 승부가 난 듯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타자를 통해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한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쓰기, 읽기 모두 큰 문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한글 전용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자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한글의 충분함’ 때문이다. 한글의 충분함은 한글 ‘한글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꽤 많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우리나라를 ‘韓國’으로 쓰든 ‘한국’으로 쓰는 모두 두 글자다. 한자는 더 나눌 수 없지만 ‘한국’은 ‘하+국’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로는 여섯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여섯 개의 글자를 ‘한국’과 같이 다시 두 글자로 모아쓰니 ‘한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은 것이다. 로마자로 ‘KOREA’라고 쓰면 다섯 글자인데 이는 더 나눌 수도 없고 모아쓸 수도 없다.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가 아닌 한글만으로 단어를 만든다. ‘집에서 먹는 밥’이란 뜻의 단어를 젊은 사람들은 ‘집밥’으로 줄여 쓰고 있다.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家食(가식)’이나 ‘家飯(가반)’ 정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혼자서 먹는 밥’이나 ‘혼자서 가는 여행’도 ‘혼밥, 혼행’으로 쓴다.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한글 두 글자에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① 한글 전용이 이긴 것은 젊은 세대들의 한글 사랑에 의한 것이다.
- ② 한글 한 글자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모아쓰기 방식 덕분이다.
- ③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한자 입력의 불편함이 한글 전용이 이기게 된 주된 요인이다.
- ④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한자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 관련이 깊다.

24

해설 ②

제시된 글은 한글 전용이 대세가 된 이유를 설명하며, 단순히 한자 입력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한글 자체가 우수하여 한글로도 충분히 모두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가진 정보 압축 능력을 강조한다.

한글의 충분함은 한글 한 글자가 담고 있는 정보가 꽤 많다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이 여섯 개의 글자를 ‘한국’과 같이 다시 두 글자로 모아쓰니 ‘한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글의 정보 압축 능력이 모아쓰

기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① 한글 전용이 이긴 이유로 한자의 불편함과 한글의 충분함을 들고 있다. 특히 한글의 충분함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집밥, 혼밥 사용 사례를 언급하지만, 이것이 한글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 ③ 타자를 통한 한자 입력의 불편함이 한글 전용의 한 가지 이유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자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한글의 충분함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한글의 충분함이 더 근본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강조한다.
- ④ 세대들이 집밥, 혼밥 등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한글 두 글자에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자를 모르거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글의 효율성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5.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한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보상 제도로 오해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재능 있고 우연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자의 교육을 제한하려는 원칙으로 오해한 듯하다.

존 롤즈(John Rawls)가 말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과 관련하여 롤즈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의(不正義)인 불공정함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우연성에서 유리한 사람 즉 천부적 능력과 재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화를 투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적 재화 투여가 자연적 우연성에 토대를 둔 교육 혜택에서 더 많은 격차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롤즈는 이러한 격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격차가 교육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특권으로 전이되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부정의하다는 것이 롤즈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직업을 통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고 사회적 권력을 갖는 것은 부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이러한 부수 효과를 차등 원칙을 통해 교정하고자 한다.

- 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② 천부적인 능력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화를 투여해야 한다.
- ③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결과로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교육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25

해설 ①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롤즈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의(불공정함)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계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답 피하기

② 천부적 능력과 재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화를 투여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에게 더 많은 재화가 투여될 수 있다고 본다. 롤즈는 재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재능 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직업을 통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고 사회적 권력을 갖는 것은 부정의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다. 교육의 결과로 얻는 특권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특권이 지나치게 커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도 교육 혜택에서 격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교육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특권으로 전이되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부정의하다고 설명한다. 원칙이 잘 지켜져도 교육 자체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고, 이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차등 원칙으로 이를 교정하고자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만으로 교육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2025년 일반군무원 국어 7급 총평

	유형	2025
1	문법	2
2	어문 규정	4
3	어법	3
4	어휘	1
5	한자, 한자어	1
6	속담, 한자성어	1
7	비문학 독해	6
8	화법, 작문	2
9	논리	2
10	문학	3
11	기타	

2020년 시험이 공개된 이후의 기조를 충실히 따른 시험이었다. 문법, 독해, 어휘, 문학 등 여러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출제했으며, 지식, 추론, 독해, 논리 등 다양한 유형을 복합적으로 다루었다. 군무원이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적합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문법, 어문 규정

문법과 어문 규정을 포함해 일부 어법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문법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다. 맞춤법, 표준어 사용, 띄어쓰기, 피동 표현, 시간 표현 등 다양한 문법 요소에서 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정 문법 요소를 지나치게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이는 2020년 시험이 공개된 이후 두드러진 경향이다. 고등학생 수준의 문법 지식이 정확하게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개편된 국가직(지방직 포함) 시험의 문제 유형 중 일부가 군무원 시험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9급과 7급 모두 영향을 받았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국가직 시험과 동일하고, ‘어순 배열’ 문제도 유사하다.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 문제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2. 독해와 추론

현재 대부분의 국어 시험에서 독해와 추론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읽고 이해하여 판단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꾸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문의 길이는 400자 내외의 짧은 글과 700자 이상의 긴 글이 고루 출제되었다. 지문의 주제도 다양했다. 언어 행위, 인문학(평화와 폭력), 경제학(공유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언어학(예: 언어 행위, 한글의 특성) 관련 지문이 출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 꼼꼼하게”라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에 5문제 정도씩 독해와 추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3. 문학

현대시(이육사 「교목」), 고전소설(김시습 「만복사저포기」)이 출제되었다. 지식형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작품을 읽고 이해하며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이육사의 시와 『금오신화』는 군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익숙하고 난도도 높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작품 목록을 정리하여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좋다. ‘하이클래스군무원’ 학원에서는 관련 무료 특강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언어 논리

논리학과 관련된 문제가 2문항 출제되었다. 7번 문항은 언어 논리 문제로, 명제 논리 유형이다. 전제를 이해하고 참인 결론을 찾는 문제로, 국가직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이번 군무원 국어 시험에는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난이도는 높지 않으며,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전제 사이의 관계만 파악해도 정답 도출이 가능하다. 16번 문항은 언어 논리의 오류(순환 논증)를 찾는 문제였다. 과거 군무원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으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2025년 군무원 국어 시험은 9급과 7급 모두 국가직 시험 문제의 영향을 받았으나, 군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일부 문제 유형만 차용한 정도이므로,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 문제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